



프로폴리스의 위력

-지난호이어서-

두리원 대표 김해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13. 자연과 건강

7. 3차 식품과 두통

자연의 영양소를 그대로 갖고 있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병을 이기게 하는 식품이 1차식품인 현미다. 껍질째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여기에 속한다. 2차 식품은 미량 영양소가 모두 없어진 식품으로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식품은 되지 못하고, 장기간 먹게될 때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이 3차 식품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3차식품을 6개월만 먹으면 비실비실하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1차, 2차, 3차 식품에 관해서 상세히 기술한 필자의 저서(건강으로 가는 길)을 읽은 한 독자가 수년 전에 전화를 걸어 와서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아들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했다. 아들을 대학에 입학은 시켰지만, 가정이 어려워 하숙을 시키지 못하고 자취를 시켰는데 여유있는 생활비도 주지 못했다고 했다. 거기에서 학원까지 다니다 보니 더 어려워 하루 3끼 라면만 계속 먹었다고 했다. 자취하는 방에 한번 가보니 라면 몇 상자만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 했다. “라면만 먹으면 되겠니” 했더니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했던 아들이 2학기도 마치기 전에 병이 들어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다가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내용이였다. 앞으로 글을 쓰면 이 이야기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에야 쓰게 되었다.

TV를 보면 두통에는 무슨무슨 약이 좋다고 선전하는 회사가 몇 개 된다. 이것은 두통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이다. 두통 환자가 많아진 것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원료인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MSG)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두통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것이 표백제의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화이셔츠를 세탁할 때 표백제가 없으면 조미료 1숟가락을 넣고, 세탁기에 돌리면 세제를 넣고 사용한 것 같이 금방

하얗게 된다. 이런 것을 매일 몇 g씩 우리가 먹고 있으니 어떻게 명철한 두뇌와 튼튼한 위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디 그것 뿐인가. 오래 보존시키기 위한 방부제나 시각을 높여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한 착색제도 두뇌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영양 전달 매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인데 효소는 열에도 약하지만, 방부제에도 약하다. 이러한 것이 영양 전달에도 나쁜 영향을 줄뿐 아니라 두뇌 영양 공급에도 억제 작용을 한다.

우리가 평소 섭취하는 미네랄 가운데 칼슘은 1일 800g을 섭취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량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거기에다 백설탕, 초콜릿 등 당분이 든 음식을 좋아하고 있다. 이러한 음식물에는 미네랄 함량이 제로(0)이기 때문에 체내 축적된 미네랄까지 사정없이 뺏어간다. 마치 물건을 차압시키는 집달리보다 우리 몸에는 더 무서운 존재들이다.

보리밥을 먹을 때만 해도 두통 환자들이 적었다. 보리쌀은 쌀보다 미네랄 함량이 4-5배나 더 높다. 보리밥 6개월 정도 먹게 되면 가벼운 두통들은 없어진다.

몸이 비대하면서 두통이 있는 사람은 프로폴리스(보통 사용자의 2/3)와 꽃가루를 몇 개월 먹게되면 없어지고 몸이 보통 체격인 사람은 꽃가루 2-3개월만 사용해도 두통은 없어진다.

8. 방사선과 1차 식품

1) 방사선과 인간생활

방사선 피해를 크게 들로 나누면 몸의 부위가 노출되어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받게 되는 신체적 영향과 방사선에 의한 후유증으로 자손에까지 미치게 되는 유전적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다량의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출산시 장애나 기형으로 출산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규명되어 있지만, 아주 낮은 상태에 노출되었을 경우 유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이 덜되어 있다.

방사선 조사시 순간적 치사량은 700렘(REM)이다. X-Ray 사진을 찍었을 때 필요한 양은 45밀리



램(1램은 1000밀리램)이다.

한 사람이 연간 우주에서 오는 자연 방사선에 쬐이게 되는 양도 30밀리램이라고 한다.

국제기준에 의한 연간 개인에게 허용되는 방사선량은 생식기에 0.5램, 피부에 1.3램, 손발에 1.5램이다. 방사선량은 신체부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인체에 주는 양도 상당히 높은 수치에 속한다.

방사선이 생물의 조직에 방사되었을 때 단백질, 효소, 핵산, 지방, 탄수화물 등 모든 세포 성분이 손상되면서 조직에 와해 현상이 일어난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방사선이 사람에게 노출되면 실신, 의식 혼미, 뇌신경 계통에 피해 증상이 나타나고, 조금 더 심해지면 입파선의 적혈구 감소와 조혈 조직의 파괴로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만성화 되었을 때는 백혈구, 백내장, 궤양성 피부염이 나타나고, 노화 현상이 촉진된다. 유전적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오고, 유전자 변이에 의한 태아 장애로 인해 기형으로 태어날 수 있다.

2) 체르노빌의 원전사고

원자력 발전사고는 14개국에서 20년 사이에 150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사고가 86년 4월 26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이다.

원자로 발전소의 제4호기가 폭발하자 순식간에 방사능 구름은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2만 5천km²의 넓은 땅을 오염시켰다.

그 중에서도 사고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km 내에는 비거주지로 설정돼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바로 방사선 피해를 입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총 2백27명이었다. 이 중에서 28명은 직접적인 피해로 바로 사망하였고, 3명은 동맥혈전증 등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총 사망자 수는 31명이었다.

1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방사능에 의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4천 3백여명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난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 수 만여명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근심, 우울증,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고, 후 장래에 발생할지 모를 막연한 두려움까지 겹쳐 상당 기간동안 건강한 사람까지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사고 이후에 누구보다 피해를 더 많이 입게 된 것이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었다. 어린이들 가운데는 많은 갑상선암이 발생하여 95년 말까지 15세

이하 어린이들만도 800여명이나 발생했다.

부모가 방사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유전적인 피해까지 생겨 기형으로 태어난 어린이들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두팔이나 두다리 없이 태어난 어린이, 머리 하나에 몸통이 두 개 달린 새끼 돼지, 뿔이 4개인 소, 다리가 8개인 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다.

3) 한국인 3세 “이리나 안”양의 후유증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후유증으로 카레이 3세인 이리나 안양(10세)의 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리나 안양이 출생할 때만 해도 그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 행복했다. 아버지는 공군 항법사로 근무했고, 어머니는 인근 도시 종합병원의 의사였다. 그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생후 10개월 때 발생한 체르노빌 사건으로 인해 생겨났다.

그의 어머니는 피폭 후유증으로 88년도에 죽었고, 안양도 그 후유증으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 지금까지 거의 매일 감기에 시달리고 있다. 거기에다 후두염과 피부병까지 겹쳐 참기 어려운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딸을 위해 고향에서 3백km나 떨어진 도시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 생활은 정부에서 주는 연금 40달러와 의료비 7달러로 두 사람의 생활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한국일보 기자에게 알려져 한국일보사가 주선하고 한국선명회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치료과정에서 면역기능의 강화를 위해 1차 식품을 줄 수 있는 의사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안양에게 5분도 현미식(완전 현미는 어린이에게 소화 장애가 옴)과 프로폴리스를 먹고 거기에 생식 세포로써 세포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충매화 꽃가루 같은 것을 먹이는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데는 약보다 더 효과적이다. 1차 식품중에서도 최고의 완전식품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건강으로 가는 길’(p. 125)에 나와있다. 필자가 수차례 논했지만, 면역기능은 약 한가지만으로는 되지 않고 어떤 것을 먹거리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꽃가루는 의사 지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1차 식품 이리나 안양에 대한 기사는 우크라이나에 특파되었던 정덕상 기자가 96년 4월 26일에 한국일보에 송고함으로써 보도되었다.

이 기사를 접한 필자는 이리나 안양을 돕고 싶었지만, 나로서는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의학박사나 소아과 의사도 담당의사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



려울 것이다. 그런데 무명인의 자연의학연구가인 필자로서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기 보다는 불가능하다.

자연의학연구가라는 명칭도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서 붙여준 명칭이 아니다. 잡지에다 글을 연재하다 보니 잡지사에서 붙여준 명칭이다. 그런데 이 명칭을 의사들이 인정해 주겠는가?

요사이 회원도 없는 회장 칭호의 명칭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몇 사람의 회원을 모아서 '자연의학연구회' 회장이라는 명칭을 한번 붙여 불가하다가 졸병없는 장군이 될 것 같아 포기했다.

봉산물 가운데 프로폴리스만은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는 의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임을 전장에서 밝힌바 있다. 그러나 꽃가루, 로얄제리, 꿀은 의사의 지시없이 사용해도 치료에 혼선이나 부작용이 올 수 있는 물질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평생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없이 사용해도 괜찮은 완전 무공해 1차 식품이다. 그러나 꽃가루에서는 체질에 따라 100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배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 원고는 '프로폴리스의 위력'의 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원고가 못된다. 이미 초고가 두 번째 나와서 3차 교정이 끝나고 페이지까지 매겨져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것은 혹 이 글을 통해 러시아에서 할아버지 고국 땅에 찾아온 이리나 안양에게 담당의사를 통해 적은 도움의 길이라도 열릴가해서 출판사에 몇 번 양해를 얻어서 쓰는 글이다.

필자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실망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대 의학의 벽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여길 뿐이다.

그러나 면역기능 강화에는 꽃가루나 현미식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5) 원전 건설과 주민들의 자세

우리가 지금 전력을 풍부하게 사용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의 덕이다. 원전 하나를 건설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일단 건설만 하면 연료 비용은 화력 발전소의 1/4 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건설도 외국 기술과 외국 자재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자재로 건설된다. 거기에는 우리의 땀도 들어간다.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그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수백 개의 연관 업체들을 살릴 수 있어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원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모두가 안전이다. 체르노빌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더욱 높아졌다.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잔소리가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전은 소련이 최저 원가 절감에 의해 만들어진 공법이 아니고, TMI에 의한 공법이라고 한다. 필자는 TMI가 어떤 공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련이 건설하였던 공법과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안다.

미국에서도 체르노빌 사건과 같이 연료가 녹아내리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전 예비되었던 동그런 통 모양의 격납용기가 방사선 물질을 완전 밀폐해서 외부에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고 한다. 그런데 원전을 세우려고 하는 곳마다 반대가 극성이다. 이것만이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과 처리장 심지어 지체 부자유 학생들을 위해 세우려고 하는 학교까지 이웃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것도 극성스럽게 반대할 때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결사반대라고 외치고 있다. 내가 반대하면 남도 반대할 것인데, 그러면 이 좁은 땅에서 어디에다 세울 것인가? 가장 적은 피해지역이면 지역 복지 혜택을 다른 지역보다 더 받고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정에 메마르고 격분을 잘하는 민족이 되었는지..., 메마른 성격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

국민 정서가 메마르고부터 위장병이 급격히 늘어났다. 위장병 환자가 전 국민의 4%로써 최고치에 이른 것도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성격이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은 위장병은 좀처럼 발생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반대에 동참 잘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는 될 수 있어도 불만에 의한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3배 정도는 높은 신경성 위염에 걸릴 수 있다.

나 한 사람이 적은 피해를 볼 때 만인이 덕을 본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우주의 에너지를 가슴에 안고 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건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적으로도 행복이 따른다.

9. 즐겁게 먹는 사람은 위장병이 없다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약의 판매 금액에 따라 그 나라의 질병 순위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약이 위장약이다. 90년도에 들어와서 위장약의 품목만도 1,500가지에 이르고 매년 10%씩 증가해 왔다. 82년도 위장약의 판매고가 1천억원에 이르렀던 것이 15년이 지난 지금(97년)은 1조원을 돌파했으니, 그 위세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위장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가 위장의 기능을 촉진하면서 부드럽게 해주는 프레팔시드이다. 이 약제가 94년도에 국내 판매 순위 4위였던 것이 95년에는 3위가 되었고 97년에는 최정상인 1위에 올라섰다.

프레팔시드 약제가 국내 매출에는 1위 자리에 올라 있지만, 세계적인 의약품 순위에는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위장병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 입증된다.

미국에는 암환자 가운데 폐암환자가 제일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암환자가 제일 많다. 암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위암환자다.

우리나라에 위장병환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쌀밥은 그 자체가 싱겁기 때문에 간간한 맛이 있어야 밥맛이 제대로 난다. 그러다 보니 반찬도 외국에 비하면 짬뽕이고 가지 수도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성인의 1일 소금 권장량은 10-15g 이지만, 한국 사람은 이 양으로는 싱거워서 먹지 못하고 보통 그 배의 양인 25-30g을 먹고 있다.

우리나라 식사는 살기 위해서 먹는 식사라고 표현한다면 외국인들은 맛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식사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먹을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먹기 때문에 먹는 시간도 길다. 그러다보니 음식물에 타액을 많이 분비해서 삼키므로 위장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적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부 손님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한 몇 분도 걸리지 않는 초고속 식사를 하고 있고 가족들과 식사를 해도 식사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를 모르고 있다.

밥상에 올려졌던 찬이 있으면 이것 몇 번째냐? 오늘도 새로운 메뉴가 없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겠는가? 이런 말들은 이장의 기능을 위축시키게 될 뿐 아니라 소화에도 장애가 되는 말들이다. 이러한 말들이 여러번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위장만이 아니고, 가족들의 위장병까지도 유발시키게 된다.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물들을 먹으면 소화도 잘되고 평소보다 1/3정도는 더 먹어도 위의 부담을 못 느낀다. 이러한 분위기는 외국 식탁에서

는 많이 볼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친구가 있고 술이 있는 식탁만은 예외이다. 그러나 식탁에 앉아 남녀가 말없이 식사를 하면 100이면 100이 모두 부부다.

식사 때는 입안에서 소리도 안내고 말없이 먹는 것이 식사에 대한 예의로 여겨온 우리 식사 문화가 위장병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식사때 웃음이 있고, 말도 많은 그 가정에서는 위장병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집 다섯 식구 가운데 식성이 좀 까다로운 아들 하나가 소화가 덜 되는 것 같은 기색을 간혹 보일 때가 있다.

식사 때마다 고마움과 감사를 느껴서 먹는 사람은 평생 위장병을 모르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다.

40-50대는 음식에 대해서 더욱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먹은 달걀 수와 쇠고기 국 그릇수까지도 곰곰이 생각하면 셀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때를 생각하면 음식 투정은 생각할 수도 없다.

지금 반찬들은 어떤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못 먹는다고 하는 집도 옛날 정승이 먹던 음식보다 나은 편인데 어떻게 불평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음식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가 없을 때 위장병 환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필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할 때 주위에서 좋다고 하는 사골(광물질의 일종) 인뼈, 말뼈까지 구해 먹다보니 위장이 한때는 나빠진 때도 있었다. 관절염이 나은 뒤부터는 그 혼한 위장병의 증세가 어떤진지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감사도 고마움을 갖고 식사하는 것은 위장병을 예방시켜줄 뿐 아니라 때로는 치료적인 역할까지 한다. "마음이 편해지고, 식사를 즐겁게 하였더니 위장병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운전기사들 가운데 위장병이 많은 것은 제때에 식사를 못하고 3ℓ 씩 분비되는 위액 조절이 못되어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짐도 없는 승객이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안까지 억지로 들어가자고 할 때는 아무리 선한 성품을 가진 기사라도 "야! 너는 다리도 없냐"하고 내 뺄는 욕이 하루에도 몇 번은 있게 될 것인데, 이런 생활 10년 하고 위장병이 없다면 도리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위장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이 직업을 하자면 그러한 사람도 상대해야 한다"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넓게 사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필자가 알고 있는 진영화씨는 30년간 운전하고



있고, 그것도 한 직장(부산 오성여객(주))에서 27년간 계속근무해 왔다. “어떤 일에도 성을 내지않고 일을 해도 기쁘게 하자”는 것이 생활의 신조가 되어 있어서 일할 때는 “항상 기쁜 마음을 갖고 한다”고 했다.

“동료 기사들은 위장병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약들을 먹고 있지만, 자신은 위장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병은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내는 병도 너무나 많다.

10. 꿀은 누구나 먹을 수 있다.

한 때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졌던 고양이는 옛날에 너무 먹지 못해서 얻어진 산후 관절통에 다소 효과가 있었겠지만, 80년 이후부터 많아진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방면에는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양이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그 대신 “꿀은 몸에 열이 있는 사람은 먹지 못한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잘못되었지만 개선의 끝은 너무나 멀어보인다.

이 학설을 적용시키면 태양인과 소수의 소양인도 먹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태양인이 먹으면 나쁠 수 밖에 없는 것은 “태양인에게는 꿀이 나쁘다”는 암시를 한 의사들로부터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그를 나쁘게 하는 것인지 꿀 자체가 나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양의학은 분석에서 발전된 의학이라고 한다면 동양의학(한의학)은 체험에서 얻어진 경험의학이다. 꿀을 한스푼 떠서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태양인은 그렇지 않아도 몸에 열이 있는데 더 화끈거리게 되면 경험의학인 한의학에서는 분명히 먹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꿀(당분)이 식도나 위에 들어가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 농도 짙은 꿀이 위액을 끌어 당기므로 속이 답답해지고, 상열이 많은 사람은 일시적이지만, 더 화끈 거린다. 이것을 체감한 한의학에서는 꿀은 극양성이어서 인삼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양성인은 못먹게한 것이다.

생꿀은 한 스푼만 떠서 먹어도 그런 현상을 느끼지만, 물에 타서 먹을 때는 몇 배의 양을 먹어도 그러한 것은 못느낀다.

생꿀을 먹었을 때 오는 반응만 갖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지금 우수한 수재들만이 들어가는 한의대에서는 이런 오류는 가르치지 않을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꿀을 먹으면 얼마나 먹나? 한 가정이 한달에 1되이상 먹는 집도 드물다. 그러나 남미나 구라파쪽에서는 꿀을 매일 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빵을 먹을 때마다 꿀에 찍어 먹는 사람도 많다.

1인당 꿀 소비량은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 7-8배나 높다. 이러한 원인은 꿀값이 싼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은 “양성인이 먹으면 안된다”는 학설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목이 짧고 몸이 비대하면 태양인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소양인이 많다. 서구에는 태양인도 많다. 이 학설을 적용시키면 꿀을 못먹을 사람은 한국인보다는 서구인들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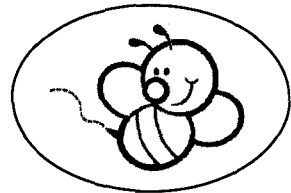
니스웨성을 향해 크게 외친 요나와 같이 “당신들의 체질은 태양인이 되어서 꿀을 먹으면 큰 일 나는 체질이다”라고 외친다면 그들은 니스웨성 사람들과 같이 순순히 받아 들이겠는가?

학설은 동양인이나 서양인이 동일하게 적용될 때 이것이 온전한 학설이다.

꿀은 누구나 먹어도 괜찮은 식품이라고 해도 “양성인은 먹어서도 안된다”는 학설이 너무 강하게 입력되어 있어서 필자의 이론은 전혀 먹혀 들지 않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벌 꿀 수 매



그동안 저희 내고향전통식품을 아껴주시고 성원하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로 드립니다.

금년에 양질의 벌꿀을 대량으로 수매할 계획이오니 양봉가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유달양봉 대표 황성오

내고향전통식품

집하장 ☎ 031)716-5000~1
011-258-6353

고흥공장 ☎ 061)834-1471~2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1리 230-1
☎(한국 노동교육원 입구 3거리)